

해저지명의 지속가능한 국제등재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the Registr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in GEBCO Gazetteer

이현욱*
Hyunuk Le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저지명의 지속가능한 해저지명목록집(Gazetteer) 수록을 통한 국제등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저지명목록집(Gazetteer)에 포함할 등재 가능한 후보 해저지명을 정리하여 DB화 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둘째, 후보군 DB의 작업을 바탕으로 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의 지침에 부합하는 해저지형의 속성을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안이다. 셋째, 우리말 고유어를 활용한 지명 후보군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 명명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말 해저지명 예비목록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해저지명, 지명집, 해저지명소위원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 continuous registr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in the Gazetteer. Th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candidate undersea feature names for inclusion in the Gazetteer are sorted and created in a DB. Second, based on the work of the DB candidate group, we review generic terms related to the SCUFN(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Cookbook to have accurate scientific evidence. Third, we extract traditional words with Hangeul from DB, such as the Encyclopaedia of Korean Culture, and list the candidates of specific terms for the names of undersea feature. we suggested a preliminary list of names for specific terms in Hangeul to establish a nomenclature system for undersea feature names.

Key words Undersea Feature Names, Gazetteer, SCUFN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해저지형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지형이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의 가치가 단순히 어업활동을 통한 수산물의 획득 등의 자원 활용을 넘어 해양레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양무역 활동의 증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해저환경에 대한 데이터수집과 구축으로 인해 해양 활용방안이 크게 확대되면서 해양의 가치는 더욱 증진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항해를 위한 수심의 측량과 해저지형의 탐사에 머무르지 않고, 해저지형의 특성과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다. 해저

지형의 경우도 최근 많은 데이터가 획득되면서 해저지형의 중요성과 해양생태계 및 주변 자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해저지형 중 주요 지형에 대해서는 명칭을 부여하고, 주요 해저지형의 성인적 분석과 해저지형의 둘러싼 해양환경의 특수성, 해저지형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간이 해양 심해를 이해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구의 생태계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며 인간 활동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양정보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예측 가능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에는 아직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더욱 정밀한 조사와 해양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

넓은 시각에서 해양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에 관한 많은 정보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축적 되고, 활용가능 하도록 변화해 가고 있다. 해저지명은 해저지형에 명명된 지명으로 해양의 주요한 정보이며 이는 인간이 해양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면서 해저라는 미개척 영역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는 해양을 활용한, 해양을 통한 전 세계와의 소통이 가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주요 해양에 우리말 해저지명을 등재하면서 해양활동의 근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해저지명은 해양활동이 확대되어 가는 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해양정보이면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주요 요소라는 점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최근 해저지형에 대한 탐사 기계와 장비가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양공간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해양정보의 다양화, 활용 가능성의 확대는 해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저성장 경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는 해양산업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단독으로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많은 해저지명 명명에 참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지명집에 수록하여 해양산업 및 해양관련 연구에 있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우위를 점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저지명의 지속가능한 국제등재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말 해저지명의 지속적인 국제등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국제등재를 위한 해저지명을 목록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해저지명을 국제사회에 등재하게 되었는데, 일부 제안지명 중 일부가 최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등재를 위해 국제사회에 제안되었던 해저지명 후보군을 DB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2007년 이래로 등재를 위해 준비가 이루어졌던 등재 후보군들의 정보를 수합하고, 중요 정보의 누락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제등재를 위해 사전에 국내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목하여, 국제등재 후보군의 국내고시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등재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속성지명의 과학적 근거정보 확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해저지명은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회의(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SCUFN) 심의를 거쳐 등재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SCUFN의 심의는 탐사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UFN에서 권고하고 있는 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 특히 속성지명의 명명에 대한 원칙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는 SCUFN Cookbook(Cookbook for Generic Terms of undersea feature names)에 충실한 해저지형의 속성 판단기준을 통해 속성지명의 과학적 근거를 확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등재후보군의 절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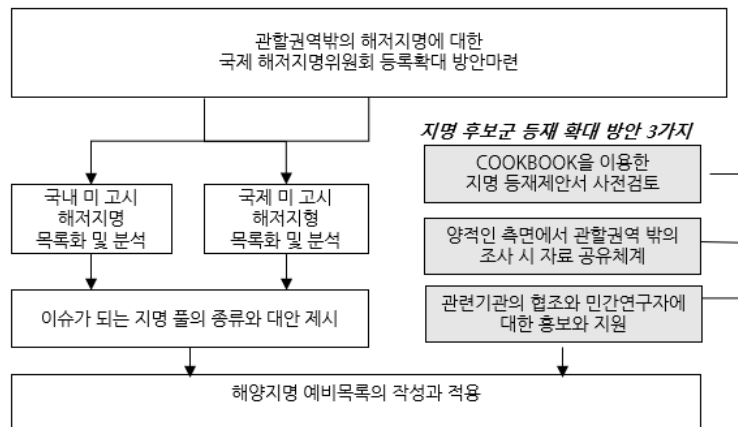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지형의 발견과 지명제안에 있어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 및 민간부문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저지명의 고유지명에 대해 우리말 지명 후보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문화재와 전통문화 관련 주요 표제어를 추출하여 국제등록을 위한 우리말 해저지명 예비목록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해저지명의 국제등록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그 표현의 방식으로 지명을 부여하는 행위가 있다. 지명을 통해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분할 뿐 만 아니라, 그 장소의 활용 또는 특성과 관련하여 그에 맞는 지명을 부여하게 된다(주성재, 2011). 지명은 최근 무형문화재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명의 담긴 문화유산의 요소로 Watt(200)는 공동체와 경관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적 유대 관계와 지명을 통해 사람과 지역의 이동을 비롯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인간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탄생한 지명은 인간의 활동영역 또는 관심영역을 표출하는데 기본이 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의 해양지명과 관련한 정비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위치상의 특성으로 인해 해양지명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다양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위해 해양지명의 표준화 및 국내 고시를 진행해 왔다¹⁾. 특히 객관적 원칙과 절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통일된 형태의 지명을 위해 지명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19).

한편 우리의 인근 바다는 해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바다는 전체가 연결되어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해양에 대해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국내의 지명표준화 작업을 통해 표준화된 지명정보가 국제사회에서 혼돈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명 전반에 걸쳐 표준화를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저지명의 경우는 육상지명과 달리 해양지명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국제수로기구(IHO)와 SCUFN이 담당하고 있다. SCUFN은 세계 각

지의 해저지형의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해 1974년 유네스코 산하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국제사회의 해저지명 표준화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해저지명의 지속적인 등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본 장에서는 해저지명의 표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해저지명의 표준화는 제13차 IHO 총회(1987년 5월)와 제14차 IOC 총회(1987년 3월)의 “해저지명의 표준화에 관해 동의”를 채택하면서 성립되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저지명을 명명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IHO-IOC 간행물 B-6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지침”에 수록된 원칙을 참조하고, “해저지명 제안서 양식”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SCUFN은 IHO와 IOC의 위임으로 지명 명명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해양연구 및 수로업무 관련 기관, 개인연구자, 단체 등에서 제출한 지명(기존 과학 출판물, 관련 해도에 표기된 지명 포함)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지명은 IHO-IOC 간행물 B-6(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심의를 통과한 지명은 IHO와 IOC, 대양수심도운영위원회(GGC)에 보고된 후 대양수심도 해저지명집(GEBCO Gazetteer)에 수록된다²⁾(국립해양조사원, 2019).

지명집에 수록된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GEBCO가 지명집에 수록된 해저지명을 널리 보급하고, 지도, 해도, 과학 출판물 등 문서에서 수록된 지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SCUFN은 UNGEGN(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과 긴밀히 소통하여야 함이 B-6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저지형 명명과 관련된 국제, 또는 국내 당국과도 소통하도록 되어 있다³⁾.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육상 및 해양지명은 표준화된 원칙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IHO-IOC 간행물 B-6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

2) B-6 중 가장 최근에 갱신된 것은 4.2.0 이다.

3) IHO-IOC 간행물 B-6 “해저지명의 표준화”에 포함된 지침서, 지명 제안서 양식과 용어 및 정의에 대한 목록은 본래 UN 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IHO-IOC GEBCO 운영위원회(GGC)”가 임명한 “GEBCO 해저지명소위원회”와 “UN 지명전문가그룹(UNGEGN)” 산하 해저 및 해양지형 실무그룹과의 협력으로 작성되었다. UNGEGN 해저 및 해양지형 실무그룹은 1984년에 해체되었지만 IHO와 UNGEGN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1) 국내의 해양지명은 2021년 부터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면, B-6는 해저지명 표준화에 관한 지침으로, 특히 현재까지는 UN 해양법협약의 합의에 의거하여 해저지형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까지 한정된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50% 이상 벗어나서 위치한 지형에 한하여 지명을 선정, 관리하는 부분에 주요 원칙을 제공한다. 또한 B-6에는 해저지명 명명원칙이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에 대해 각각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6 4.2.0의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많은 해저지명을 지명집에 수록하여 국제등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B-6에는 고유지명의 경우 9가지의 원칙, 속성지명의 경우 3가지의 원칙이 기술되어 있으며 명명절차는 9가지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해저지형의 용어와 정의 부분에는 속성지명에 대한 지형별 정의가 간략히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B-6의 속성지명에 대한 지형별 정의가 매우 간략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새로운 지명을 제안함에 있어 제안자가 속성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최근 SCUFN은 Cookbook을 통해 해저지명 속성에 관한 이미지자료와 속성판단 기준을 포함시켜 해저지명의 속성지명(generic term)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국제등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한국의 해저지명의 후보군을 Cookbook을 통해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3. 국제등재를 위한 미등재 해저지명 목록화 작업

본 절에서는 국제등재를 위한 후보군 해저지명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해저지명을 국제사회에 등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등재를 위해 제안서 작성이 이루어졌던 후보군을 DB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2007년 이래로 등재를 위해 준비가 이루어졌던 등재 후보군의 정보를 수합하고, 중요 정보의 누락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과거 국제등재를 위해 준비에 착수하였던 지명을 DB로 구축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저지명의 국제등재 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던 관련 사업⁴⁾의 최종보고서를 국립해양조사원의 협조로 수합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과거 자료(보고서)의 내용 중 한국의 해저지명 국제등재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IOC 및 IHO 운영진에서 조직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해저지명위원회 정관변경을 요청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지명은 심의제외(Rule of Procedure: 2.10) 라는 신설된 규정을 각 회원국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2012년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중간선 주변에 대한 해저지형을 파악하여 국제지명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일본식 이름의 속성 및 성인 지명 중 오류를 분석하여 한국의 지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논리와 함께, 위원들을 설득 시킨 후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안이 기술되어 있다.

2009년에는 제22차 SCUFN 회의를 통해 현재 제안서의 채택 관련 용어 등이 자리를 잡게 된다. 수락(accepted), 채택(adopted), 불가(not accepted), 보류(pending)의 4가지 분류기준을 통해 제안된 지명에 대한 결정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2년 제25차 SCUFN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지형이 아르헨티나와 영국간의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심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어도 및 이사부해산과 같이 한중일 가상 중간선 주변 해역에 분포하는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러한 지점의 지명이 채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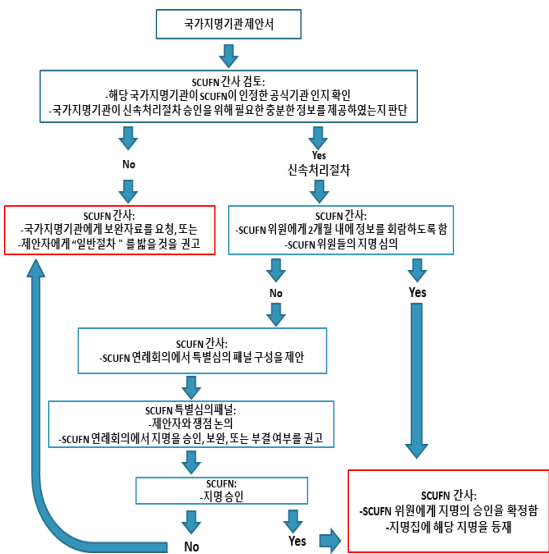


Figure 2. Procedure for the adop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fast-track procedure)

4)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지명조사 사업

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협의하여 공공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해저지명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이 해저지명을 제안했을 당시의 해저지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안된 지명이 추후 본회의에서 어떠한 방식(속성지명, 고유지명의 최종 결정)으로 최종 채택되었는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예로 가오리아리랑해산, 백두평정해산, 온누리평정해상은 당초 Tablemount으로 제안되었으나, Guyot 해산으로 수정되어 채택되었다. 또한 2009년도 22차 회의에서는 거북선평정해산이 중복 제안 되어 최종적으로 불가판정을 받은 사실 등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리한 DB와 그 분석 결과에 관한 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2007년도 이후 2021년까지의 해양지명 최종보고서, 국내고시 DB를 통해 등재후보군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다. DB 구축 시 정리한 항목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Entity of DB

기본 정보	고시 여부 정보	등재 관련 정보
조사년도	고시지명	등재 제안시 지명
해역	속성지명	등재여부
지명후보(국문)	고시년도	등재된 최종 지명
지명후보(영문)	고시여부	제안서 작성여부
조사위치	고시번호	보류, 불가 사유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양지명 DB(등재 및 등재후보군 포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저지명 DB를 작성한 결과, 총 116개의 지명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현재 61개의 지명이 국내고시가 완료되었고, 동시에 국제 등재되어 있다. 55개의 지명은 미등재 되어 있으며(표 3) 이중 국내 고시가 된 지명(13건), 미고시 지명(27건)이 있다.

미등재된 55개의 지명 중 국제 등재를 시도하였던 지명 중 현재 보류(pending) 상태인 지명이 2건이며, 보류인 지명에는 이미 국내 고시가 된 이규경해산과 국내 미고시인 이사부칼데라가 있다. 미등재 55건은 국내 고시여부를 파악하여 국제등재 후보군으로서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고시가 확실하게 안 된 건이 25개이고, 17개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고시 DB를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 고시 DB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시 DB의 갱신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최종적으로

고시확인이 필요한 건은 총 42건임을 알 수 있다(Fig. 1).

또한 등재후보군 중 고시가 안 된 25개의 지명에 대한 고시(Table 2)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시가 되지 않았던 사유를 재확인하여 고시를 위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2. Candidates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in domestic Gazetteer

	지형분류	지명 후보
1	안부	독도/심홍택안부
2	해저수로(Sea Channel)	독도해저수로
		태화해저수로
		가덕수로
3	해저협곡(Canyon)	배계주해저협곡
		울산 해저협곡
4	해저선상지(Fan/cone)	울진해저선상지
5	해저구릉군(Hills)	울릉해저구릉군
		표주박해저구릉군
		궁북 해저구릉지형구
6	해저구릉(Hill)	JM05 ⁵⁾
		부부해저구릉
		자라해저구릉
		문단이 해저구릉
		턱밭이구릉
		중턱해저구릉
중턱해저구릉		
7	해산(Seamount)	NJ10 ⁶⁾
		NJ09 ⁷⁾
8	해저용기부(Ridge)	송편해저용기부
9	해저절벽(Escarpment)	고석해저절벽
10	평정해산(Tablemount)	거북선평정해산
		가오리평정해산
11	초(Reef)	이어도
		삼방초
12	해곡(Trough)	대한해곡

해저지명 등재후보군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먼저, 현재 한국은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지명이 있다. 최근 2021년도 S처루 회의에서 보류로 결정된 이규경해산은 필리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의 조정 필요한 해저지명으로 독도/심홍택안부, 독도해저수로, 배계주해저협곡이 있다.

- 5) JM05는 등재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이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고유지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6) NJ10은 등재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이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고유지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7) NJ09는 등재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이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고유지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Table 3. Candidates of undersea feature names

	지형분류	지명 후보
1	평정해산(Tablemount)	심홍택해산
		이사부해산
		가오리평정해산
		거북선평정해산
2	해산(Seamount)	해오름해산
		호룡해저늘
		NJ09
		NJ10
		이규경해산
3	해저간극(Passage/gap)	울릉서해저간극
		울릉동해저간극
		한국해저간극
4	해저대지(Plateau)	한국대지
5	해저분지(Basin)	울릉분지
6	초(Reef)	이어도
		파랑초
		삼방초
7	해저수로(Sea Channel)	가덕수로
		은가람해저수로
		깊은골해저수로
		태화해저수로
		독도해저수로
8	해곡(Trough)	대한해곡
9	해저협곡(Canyon)	울산해저협곡
		울진해저협곡
		후포해저협곡
		배계주해저협곡
10	해저구릉(Hill)	중턱해저구릉
		턱밭이구릉
		문단이해저구릉
		자라해저구릉
		부부해저구릉
		비로봉해저구릉
		JM05
		아라온해저구릉
		외돌개해저구릉
11	해저구릉군(Hills)	궁북해정구릉지형구
		미르해저구릉군
		오누이해저구릉군
		송아리해저구릉군
		비곶해저구릉군
		표주박해저구릉군
		울릉해저구릉군
12	해저절벽(Escarpment)	고석해저절벽
		삼척해저절벽
13	해저용기부(Ridge/Rise)	송편해저용기부
		비녀해저용기부
		울타리해저용기부
		울산바위해저용기부
14	해저늘(Knoll)	장도해저늘
		산방해저늘
15	사퇴지형구 (Sand Ridge Province)	경남사퇴지형구
16	해저선상지 Fan/cone	울진해저선상지
17	안부	독도/심홍택안부
18	칼데라(Caldera)	이사부칼데라

다음으로 과거 등재를 위해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 또는 데이터 재처리문제로 등재가 미루어졌던 해저지명(남극(JM05, NJ10, NJ09), 울진해저선상지, 부부해저릉)이 있다.

속성지명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송편해저용기부, 고석해저절벽이 있으며, 최근 해저지형 중 이슈가 되고 있는 규모가 작은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 부여와 관련된 울릉해저구릉군, 자라해저구릉이 있다.

국내고시가 부결된 등재 후보군에 대해서는(삼형제해저구릉군, 부부해저릉, 자라해저구릉) 국내고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재 후보군 중 등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지명(황해사퇴지형구, 문단이해저구릉, 턱밭이구릉, 중턱해저구릉, 울산해저협곡, 대한해곡, 삼방초, 가덕수로)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지속적인 해저지명의 국제등재를 위한 방향 제시

본 절에서는 지속적인 해저지명의 국제등재를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해저지명의 속성지명의 명명에 있어 활용하는 기준을 자세히 검토하여 앞으로 한국이 제안한 지명의 채택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고유지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문화재 및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해저지명 고유지명의 후보군을 정리하는 방안이다.

4.1 Cookbook 활용을 통한 국제등재 속성지명 검토방안

본 절에서는 등재후보군을 목록화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해저지명을 등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안된 해저지명은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여부가 결정되는데,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해저지명의 등재에 있어 보다 정확한 과학적 정보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 후보군의 DB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관리 방안을 통해 해저지명을 등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국제해저지명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해저지형의 속성 판단기준과 지명 명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등재후보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 및 민간부문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Cookbook을 활용하여 등재후보군의 주요 항목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SCUFN Cookbook의 주요 내용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SCUFN Cookbook(2021년 6월에 갱신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시하다시피, SCUFN의 역할 중 일부는 해저지명 채택에 대해 개인 및 해당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 문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적절한 속성지명을 채택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 지침은 형태학적 형태를 분류하고 적합한 속성지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기준(규모, 깊이, 경사도, 길이 대 너비 비율)을 다루고 있다.

Cookbook은 일부 속성용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해양지명의 등재를 위해 Cookbook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지형물의 데이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본 문서는 SCUFN 회의에서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어, 제안서 기준 충족조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해저지명의 지속적인 등재를 위해서는 B-6와 더불어 Cookbook의 적용을 통해, 사전에 국제등재를 위한 지명을 후보군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제안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문서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속성지명별 규모, 깊이, 경사, 길이 대 너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제안자의 지형물에 되도록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과, 한편 유사한 지형물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속성지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이상과 같은 항목(12개)에 대한 자료취득 및 제안자 자가평가(체크리스트 등)의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4.2 우리말 해저지명 예비목록의 작성과 적용

본 절에서는 표준화된 원칙에 의하여 해양지명 명명 체계 구축 및 국제등재를 위한 우리말 해저지명 예비 목록을 마련하여 제안한다. 국제등재가 필요한 해저지명의 경우는 지명의 명명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

Table 4. Guideline of the generic terms in Cookbook

주요 항목	주요 특징
보류지명 (Pending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중인 이름의 경우 2년간 유효함
오랜 기간 사용된 지명 (논문 상 지명, 해도상의 지명) (Names in long-standing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이상 논문에 사용된 이름이 새로 제안된 지명보다 우선시 됨 • 25년 이상 공식 해도상에서 사용된 지명은 새로 제안된 지명보다 우선시 됨
최소한 데이터 (Minimum extend of data co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수심 자료 필요 • 허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측면에서 제안된 일반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데이터는 해저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함 b) 데이터는 제안된 일반 용어에 대한 정의 기준이 충족됨을 보여 주어야 함
성인적 기원 (Genetic-origin fea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적 의미가 있는 해저지명 제안의 경우 성인적 특징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이 정보에는 다음 중 하나(해당 지형 및/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과학논문, 지구 물리학 데이터, 지질학적 데이터, 하부 바닥 측심기 등)가 포함될 수 있음
지형물 그룹 (Groups of fea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이름 주체가 있는 지형그룹은 가능하면 그룹에 대해 인접지형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어야 함. 그룹의 이름은 이웃하는 지형지물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함.
속성 지명 정의의 기본개념 (Basic concepts for Generic Term defin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지명은 해양 내에서 형태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지형지물에 적용함. 해수면 위로 확장된 모든 지형지물은 해저 지형지물이 아니며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은 환초 및 암초와 같은 지형지물은 SCUFN에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음 • 모든 유형의 해저 기능에 대한 속성용어가 있어야 하므로 속성 용어 정의는 해양 내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도록 광범위해야 함. 본 문서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때때로 기능에 맞는 일반 용어를 찾기 못할 수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이 문서의 기준에 “일반적으로” 및 “보통”과 같은 용어가 자주 사용됨 • SCUFN은 본 문서의 지침을 직접 준수하지 않는 속성용어를 허용하는 데 약간의 유연성이

주요 항목	주요 특징
	<p>있음. 예를 들어, 다른 지형 목록과의 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PROMONTORY 및 SEABIGHT 라는 용어는 기본 목록에 없음. 이런 경우 하나의 옵션은 PROMONTORY에 대해 SPUR 용어를 사용하고 SEABIGHT에 대해 VALLEY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근접성은 지형지물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길이 대 너비 비율이 3:1 보다 훨씬 큰 좁은 BASIN은 종종 피요르드 내에서 발생함. 따라서 본 문서에 명시된 기준은 영해 내 기능에 대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함. • 일부 기능에는 다른 속성용어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음. 또는 기능이 다른 기능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해산은 여러 개의 능선과 같은 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상에는 칼데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즉, 기능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단일 용어로 기술될 수 있으며 기능의 개별 구성 요소가 정의되고 명명될 수 있음. 갈라지거나 구성 요소가 매우 불연속적이고 쉽게 묘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의 이름을 별도의 기능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음 • 성인적 의미가 있는 기능에 대한 속성지명은 B-6에서 별도로 정리됨. 현재 이들은 CALDERA, FRACTURE ZONE, MOUND, MUD VOLCANO, REEF, RIFT, SALT DOME, SAND RIDGE, SHOAL 및 RIDGE 임. 지형지물의 형성 과정이 형태학에서 명백한 경우(예: CALDERA, FRACTURE ZONE, REEF, RIFT, SALT DOME)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속성용어를 사용하려면 지질 정보가 필요함.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속성용어를 사용해야 함. • 위에 나열되지 않은 일반 용어가 있음. 정의에는 고유한 지질학적 과정이 필요하므로 성인적 의미가 있음(예: LEVEE, FAN, SHOAL). 이러한 경우에 특징의 형성 과정은 형태로부터 명백하다고 가정함
길이 대 너비의 비율 (Length to width rat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비율이 핵심 • 일반적으로 길이 대 너비 비율이 3:1 미만인 지형지물은 ABYSSAL PLAIN, APRON, BANK, BASIN, CALDERA, DEEP, FAN, GUYOT, HILL, HOLE, KNOLL, MOUND, MUD VOLCANO, PEAK, PINNACLE, PLATEAU, SALT DOME, RISE을 SEAMOUNT 있음 • 길이 대 너비 비율이 3:1보다 큰 지형지물에는 CANYON, ESCARPMENT, FRACTURE ZONE, LEVEE, MOAT, RIDGE, RIFT, SAND RIDGE, SEA CHANNEL, SPUR, TRENCH, TRUGH 을 VALLEY가 포함 • 일부 기능은 일반적으로 길이 대 너비 비율이 10:1보다 큼. CANYON, FRACTURE ZONE, SEA CHANNEL 및 관련 LEVEE임. 일반적으로 길이 대 너비 비율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 3:1보다 작을 수도 있음 • 가변 길이 대 너비 비율의 특징은 GAP, PROVINCE, REEF, SADDLE, SHELF, SHOAL, SILL, SLOPE을 TERRACE
깊이와 높이 (Depths and heights of fea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심(ABYSSAL PLAIN, BANK, SHELF 및 SHOAL)을 포함하는 정의가 있는 속성지명은 소수에 불과하나, 여기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 SEA CHANNEL은 일반적으로 SLOPE의 바닥에서 발생하며 ABYSSAL PLAIN에서 종종 발견되나 해저가 완만한 경사지는 200m 이상의 얇은 깊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 • 수심은 대부분의 지형지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깊은 등심선에서 측정할 때 주변 기복 위로 1,000m 이상 높이가 있는 SEAMOUNT 및 GUYOT에 대한 정의에 내재되어 있음. 이러한 지형은 수심 1,000m 미만에서는 발생할 수 없음 •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해저에서 지형지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형지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깊은 등심선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정상에서 형상의 베이스를 정의하는 가장 깊은 등심선과 가장 얇은 등심선의 평균 깊이까지의 높이로 단순화할 수 있음.
경사 (Steepness of fea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사각을 식별하도록 함. 예로 많은 지형물에는 종종 5도보다 큰 각도로 경사지는 하나 이상의 가파른 면이 있음 • HILL, KNOLL, MOUND, MUD VOLCANO, PEEK, PLATEAU, SALT DOME, SEAMOUNT, TRENCH, TROUGH 및 VALLEY가 해당되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지형지물에는 더 완만한 경사면이 있을 수 있음 • 10도 이상의 매우 가파른 측면이 있는 지형물은 CANYON(측면), ESCARPMENT, PINNACLE 및 SEA CHANNEL(측면)임
놀과 힐 (Knolls and H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LL과 KNOLL의 차이는 매우 미묘함. 두 기능 모두 높이가 1,000m 미만이고 측면이 5도 보다 가파름 • 둘의 차이점은 형태의 부드러움. KNOLL은 거의 대칭적인 경향이 있으며 상단이 매끄럽고 둥글거나 원추형인 반면 HILL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임
기요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6 간행물에서 GUYOT은 비교적 매끄러운 평평한 상단을 가진 SEAMOUNT로 정의

주요 항목	주요 특징
(Guyot defin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GUYOT은 파도 침식에 의해 잘린 화산섬에서 시작하여 해저가 중앙 바다의 확장 능선에서 멀어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이 잠기게 됨. 이러한 특징은 면적이 수십 평방 킬로미터에서 수백 평방 킬로미터까지 다양함 GUYOT 상단의 평평한 지형 면적도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 제곱 킬로미터 이상. 평평한 지형이 1 제곱 킬로미터 미만인 지형지물은 일반적으로 SEAMOUNT로 간주됨. 정의에서 비교적 평평하다는 용어는 거의 평평함(2도 미만의 경사)을 의미 GUYOT 꼭대기의 평평한 지형의 맥락에서 2도 미만의 경사는 정상 고원을 가로지르는 가장 짧은 수치가 정상 고원 지형의 28배 이상임을 의미
최소 규모 (Minimum dime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UFN에는 이름을 지정할 기능에 대한 최소 크기가 없음. 그러나 육지지형과 마찬가지로 지름이 수백 미터 미만인 해저지형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름이 지정되지 않음

가 있다. 현재 한국의 해양지명은 고유지명 명명 원칙에 의해 명명되고 있으며, B-6 GEBCO Gazetteer의 고유지명을 분석해 본 결과 주변 섬 이름,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과학자 이름, 해양 관련 주요 학자 이름, 관련 인공위성명, 근처 인공지물명, 거주 소수민족, 의미 있는 숫자, 역사 시대 이름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 고유의 순우리말 등을 국제등록 하기 위하여 역사적 전통성을 가진 명칭 등 우리말 해저지명 예비목록을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비 목록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국립국어원 어촌생활어 조사”, “한국의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 “해양교육포털”, “해양수산부 해양위인”을 참고하였다. 추출에 있어서는 기존에 등록된 B-6의 고유지명 명명 원칙과 해외 국가들의 해양지명 명명원칙, 한국의 해양지명 명명원칙을 반영하였다.

4.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추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 최초의 한국문화를 집대성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백과사전으로 65,000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해저지명의 예비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표제어를 간결성, 인지도, 한국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1,000개 추출하였다. 추출된 1,000개의 표제어 중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개념들을 반영하여 2차 추출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물, 사건, 민속 생활어에서 323개 추출(의의와 평가 포함)되었는데, 해당 323개의 표제어 중 약 40%의 표제어가 사진 등의 도판 자료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어휘를 활용하여 유사한 지형 그룹은 역사적 인물, 신화적 특징, 별, 별자리, 물고기, 새, 동물 등 특정 범주에 대해 집합적으로 명명될 수 있다. 집합적으로 명명된 유사한 지형 그룹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낱말밭의 개념을 활용하여, 중심 어휘와 관련어휘로 시리즈를 구성하여 예비목록에 추가하였다.

Table 5. Category of Glossary

분류6	표제어의 주요 내용
인물	역사인물, 현대인물, 성씨
단체	교육, 문화기관, 학회, 신문, 방송사,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문헌	총서류, 학술지, 잡지, 문집, 외국인저서
작품	현대문학작품, 동요, 영화, 방송곡
유물·유적	지정문화재, 교회, 성당, 궁궐, 사찰, 사당
물품	현대과학물품, 음식물, 약재, 동식물
사건	역사사건, 행사
제도	기구, 법제, 신분, 직위, 계급, 계층, 국방
지명	행정지명, 고지명, 자연지명, 기타 지명
개념	사상, 국가상징항목, 질병
해외문화	인물, 지명, 행사, 단체 등

주요어는 한글, 한복, 전통술, 달의 , 전통악기, 어로 도구, 농기구, 생활도구 관련어로 각 어휘에 있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휘들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재추출하여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Table 6. Related words

주요어	관련 어휘
한복관련	마고자, 저고리, 갓, 배자, 치마, 적삼, 조끼, 포, 노리개 , 도포, 버선
한국 전통 술	막걸리, 동동주, 백화주
한국, 한글	벼루, 붓, 한지
자연현상	초승달- 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 등
전통악기	비파, 거문고, 가야금, 소고, 아쟁, 영고, 용고, 장구, 징, 고동, 대금,
도구(어로도구, 농기구 등)	살포, 연자매, 외당아리방아, 작두, 쟁기, 절구,키, 풍구, 호미, 곡괭이,고무래, 곱방매, 도리깨
생활도구	홍두깨, 화로, 골무 등을 활용

4.2.2 국립국어원의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생활어 기초어휘” 기초어휘 정리목록

민족생활어 조사 중 2012년도에 실시된 “어촌 생활어 조사”는 다음의 어휘들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동해, 서해, 남해, 제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 485

개 어휘가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간결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동해 30개, 서해 23개, 남해 10개, 전통어로 4개를 추출하여 총 65개의 어휘를 해양지명 예비목록에 추가하였다.

국립국어원의 어촌생활어 기초어휘의 범위는 다음의 6가지이다.

-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된 어휘
- 어업과 관련된 환경(물때, 시간 때, 바람, 방, 바다, 등) 어휘
- 우리나라 해안이나 바다에서 나는 어류, 계류, 조개 류, 해조류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지역의 특산 어획물과 관련된 어휘
- 어로 방법과 관련된 어휘
- 지역의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과 관련된 어휘
- 어촌의 독특한 민속 문화와 관련된 어휘

4.2.3 한국의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고유유산이라 인식된 것을 활용하여 해양지명을 명명하는 것이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세계유산 중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14개), 기록유산관련(조선통신사), 인류무형문화유산(택견, 줄다리기 등 19개)을 예비목록에 추가하였다.

4.2.4 그 외 정보들

그 외 예비목록에는 해양교육포털사이트와 해양수산부 해양 위인 17인이 포함된다.

- 해양수산부 해양 위인 17인: 근초고왕, 문무왕, 이사부, 정양전(자산어보), 혜초, 왕건, 최영, 최무선,

안용복, 김옥련, 제주해녀회, 홍순칠, 독도의 용수비대,

- 해양교육포털(<https://www.ilovesea.or.kr/main.do>)을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속성지명과 고유지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근거마련 외에도 다음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 조사된 해저지형이 부족하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영해내가 아닌 공해를 탐사하면서 발견된 다양한 지형에 대한 조사데이터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또한 남극해역에 있는 경우는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가 남극 해역 현장 조사수행시 등재후보군 중 해당지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를 구해서 제안서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갱신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양 ODA 사업 등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피지, 조지아 등의 해당국가에서 해저지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동등재 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의 해양기술 및 해양영토를 넓히는 방안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피지 등의 경우 해저지형 탐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지형 중심으로 지명이 명명되고 있어, 미세지형 등에 대한 해저지명 부여에 한국이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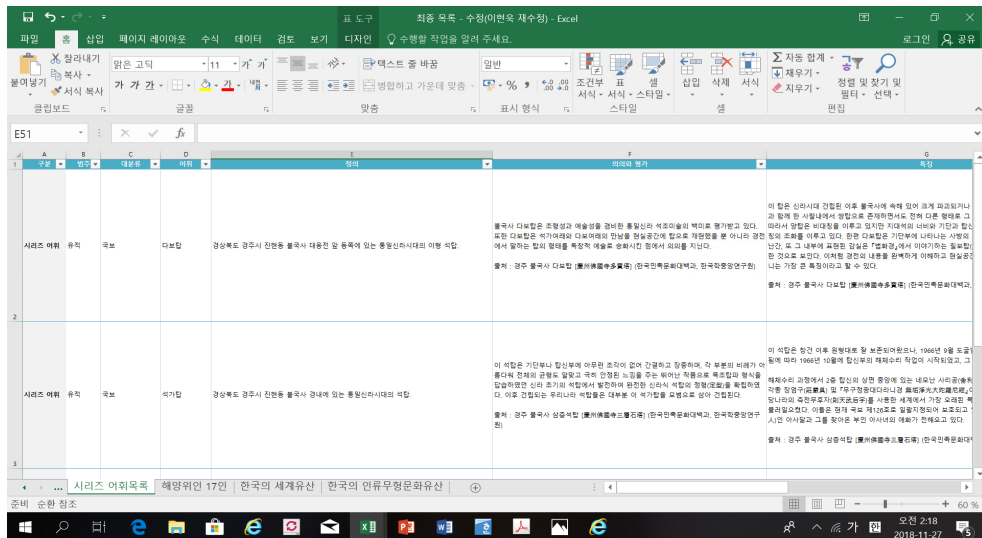


Figure 3. List of specific names in Hangeul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속적인 해저지명의 국제등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말 해저지명의 지속적인 국제등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국제등재를 위한 해저지명을 목록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해저지명을 국제사회에 등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2021년까지 등재를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였던 후보군을 DB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2007년 이래로 등재를 위해 준비가 이루어졌던 등재후보군의 정보를 수합하고, 중요 정보의 누락 여부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등재후보군을 목록화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이 지속적으로 해저지명을 등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제안된 해저지명은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가 결정되는데, 최근 탐사와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해저지명의 등재에 있어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 등재후보군 DB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관리 방안을 통해 해저지명을 등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국제해저지명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SCUFN Cookbook에 충실한 해저지형의 속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자료를 통한 해저지명 채택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우리말 지명의 후보군을 목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 관련 용어와 문화유산을 표제어로 추출하여 해저지명의 고유지명 후보군으로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지명이 발견되어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경우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IH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해양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해양관련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국제위원들이 헌신하여 글로벌 해양 영토의 확장을 위해 힘써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사회에서의 주요 위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그 후속연구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장기적 전략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립해양조사원, 2019, 우리바다 우리해양지명.
2. 국립해양조사원, 2020,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3. 주성재, 2011, 유엔의 지명논의와 지리학적 지명 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442-464.
4. 해양지명 표준화 및 알리기 최종보고서 각 년도.
5. IHO-IOC B-6 4.2.0, 2019,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6. SCUFN Cookbook for Generic Terms of undersea feature names, version June, 2020.
7. <https://encykorea.aks.ac.kr/>
8. <https://heritage.unesco.or.kr>

